

친구와 선교사

안녕하세요!

제 이름은 후안 바우티스타이고,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.

저는 복음을 나누며 빛을 비추어요.



제일 친한 친구

저의 제일 친한 친구 파쿤도와 저는 다섯 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. 우리 둘 다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! 저는 파쿤도를 교회 활동 모임에 많이 초대했죠.



파쿤도의 첫 번째 질문

한번은 파쿤도가 우리와 저녁을 먹다가, “너희 가족은 왜 항상 기도를 하니?”라고 물어봤어요.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과, 기도는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해 줬어요. 파쿤도는 감동했어요!



가정의 밤

파쿤도는 제 동생 벤자민이 침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가정의 밤에 왔어요. 파쿤도는 영을 느꼈고, 자기도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! 그러자 아빠가 파쿤도의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.

선교사들이 파쿤도의 가족을 가르쳤어요. 그리고 파쿤도와 그의 누나 오거스틴은 둘 다 침례를 받았어요! 파쿤도의 부모님도 교회에 오시지만, 아직 침례는 받지 않으셨어요.



파쿤도의 두 번째 질문

파쿤도는 우리 엄마께 제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만큼 자기도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될지 여쭙보았어요.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가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!



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?

- 교회 활동 모임이나 가정의 밤에 친구를 초대한다.
- 친절과 사랑의 훌륭한 모범이 된다.
- 기도로 도움과 영감을 간구한다.

별을 보내 주세요!



예수님께서 우리에게 “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!”(마태복음 5:16)고 하셨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추나요? 별을 오려서 그 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 주세요. 부모님께 여러분의 별 사진을 이메일 liahona@ldschurch.org로 보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.